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형 생태계 조성…파격 인센티브 내야”



이연주 국회의원이 18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옹봉홀에서 열린 '2025 제4회 전남대 옹봉포럼'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연주 의원, 전남대 옹봉포럼 '호남경제 발전' 특강

전력요금 지역차등제 적용

전남 기업체 등 유치 호재

지자체 세제 감면 등 법제화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18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옹봉홀에서 열린 '2025 제4회 전남대 옹봉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이연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간 포

괄적 전략동맹과 호남경제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영광 한빛원전이 전남지역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전력요금 지역 차등제 적용으로 전남지역은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의 전력 공급 환경은 매우 양호하다”며 “전남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용량 30GW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안정성과

주민의 수명연장 동의를 전제로 1~6호기 전력량은 2950MW이다”며 “전남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데이터 센터·기업 유치 및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이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산단 내 태양광·풍력 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면 기업은 울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향후 전력요금 인하,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을러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 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발전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지역상생·주민 참여형 모델 수립과 함께 학교, 주거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 청년층도 유입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극복의 출발점은 기반시설 구축, 콘텐츠 개발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전남의 경우 차세대 전력망 부품 특화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한 산업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차세대 전력망 수출산업화,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친환경 선박·해양클러스터, 우주·항공산업 등 기존사업을 고도화하고 탄소중립의 산업구조 대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노건기 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에너지밸리포럼 특강

“국제협력 강화·에너지 기술 주도로 안보환경 대응”

미국 자국 우선주의 확산…반도체 수출 편중

K-콘텐츠 수출·기술교류 등 변화 전략 필요

“안보환경 변화는 국내 에너지정책의 핵심변수로, 국제협력 강화와 에너지 기술 주도가 필요합니다.”

18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 제79차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노건기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에너지’란 주제 강연에서 이처럼 밝혔다.

노건기 전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확산, 미국 관세조치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상호관세·자동차관세를 15% 확설했다”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제조2025’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재생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첨단 기술 수출통제를,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며 석유·가스·원전 에너지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집중한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북아프리카, 노르웨이 등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2050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산업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품목·방식의 다변화 전략이 반영된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실장은 “한국은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로 편중됐다”며 “자동차관세 15% 합의, 반도체·의약품 관세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지만 미 관세 부파에 따른 국내 피

해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패션·뷰티·푸드 등 K-콘텐츠가 담긴 소비재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활한 에너지자급 수급을 위한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노 전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해 자원 수급에 변수가 많아 아세안, 호주, 중남미 국가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핵심광물 가공·재활용·기술교류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 기술표준 주도와 저탄소 시멘트·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형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사)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은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으로, 공기업과 지자체, 관련 기업에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코트아드 메리어트 서울에서 ‘차세대 마이크로LED 기술세미나’를 열고, LED 기업들의 마이크로LED 산업전환 지원에 본격 나섰다.

한국광기술원, 차세대 마이크로LED 기술세미나

기업 맞춤 교육·기술교류…연 600명 재직자 지원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코트아드 메리어트 서울에서 ‘차세대 마이크로LED 기술세미나’를 열고, LED 기업들의 마이크로LED 산업전환 지원에 본격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광기술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마이크로LED 집광, 구동, 제품 동향 등 산업전환에 필수적인 기술 요소를 단계적으로 소개했으며, LED 제조공정과 장비·부품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마이크로LED 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기술적 연계성과 시장 가능성도 폭넓게 논의됐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정보와 직무 전환 전략을 공유했다.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홍영준 교수의 ‘마이크로LED 응용기술 및 산업 요구사항’ 특강을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어 마이크로LED 집광, 구동, 제품 동향 등 산업전환에 필수적인 기술 요소를 단계적으로 소개됐으며, LED 제조공정과 장비·부품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마이크로LED 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기술적 연계성과 시장 가능성도 폭넓게 논의됐다.

한국광기술원은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전문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 업스킬·리스크릴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기술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과 분기별 기술세미나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용진 원장은 “마이크로LED 분야는 기존 LED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할 만큼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미나와 재직자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산업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담양레이나CC, 후원금 전달

장애인 돕기 500만원 ‘쾌척’

담양레이나CC(회장 황세원)는 차성만 대표이사가 최근 열린 제19회 담양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의 장애인들을 격려하며 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차성만 담양레이나CC 대표이사, 정철원 담양군수, 김중택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 여운복 담양군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담양군 장애인협회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황세원 담양레이나CC 회장은 지역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월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매년 5월과 11월 열리는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및 담양군 장애인한마음대회에도 지속적인 기부로 나서고 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국제인재개발원에서 지역 청년과 가전기업이 함께 진행한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국제인재개발원과 공동 개최했다.

청년-가전기업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광주상의, 직무역량 강화·중기 마케팅 애로 해소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국제인재개발원에서 지역 청년과 가전기업이 함께 진행한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국제인재개발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이 약 2개월간 지역 가전기업과 협업해 수행한 마케팅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2025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내일청년 특화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년들은 실제 기업의 마케팅 현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행사에서는 그 과정에서의 도출된 성과와 기업 애로 해소 사례가 공개됐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AED 자동심장충격기 제조기업 ㈜나눔테크와 온열매트 전문기업 ㈜곰지락이 참여했다.

두 기업은 마케팅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청년들은 마케팅 콘텐츠 제작과 개선 아이디어 제시 등 실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EBS ‘나눔 0700’ 기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3억6000만원 전달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18일 E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난치성 환우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손길이 나비효과로 번져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이중근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도 부영그룹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EBS는 전달받은 기금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순환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의 후원은 장애인, 난치성 환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약 160가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교육·문화시설 기증, 장학사업, 재난구호, 역사 알리기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부영그룹이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1조2000억원이 넘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GICON, 콘텐츠산업 비전 논의

내일 ‘글로벌 실감기술세미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20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VX스튜디오에서 콘텐츠·기술·창의성이 융합된 광주 콘텐츠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글로벌 실감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로 성장하는 광주 미래산업’을 주제로, 국내외 콘텐츠 기술 개발 동향과 제작 사례를 공유하고 광주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도네시아·일본·중국 등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튜디오광주인아시아(SGiA)’ 네트워크 포럼 △SGiA 협의회 운영 △바추릴 프로젝트 전문가들이 미래 콘텐츠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실감기술 세미나 △AI·XR 등 실감기술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이 준비됐다. 특히 SGiA 네트워크 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자구의 글로벌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광주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과 협업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처음 구성되는 SGiA 네트워크 협의회와 함께 진행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

